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Press Release			
Request	For Immediate Release			Pages : 3	
Date of Release	7.16.2021 (금요일)	Contact	Tammy Cho 323-936-3014		

미국속 한국미술 시리즈 **SFMOMA: 백남준 회고전**

“미 서부 최초 백남준 대표작 200여 작품 집대성”



▶ 행사명 : 미국속 한국미술 -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Korean Art in America -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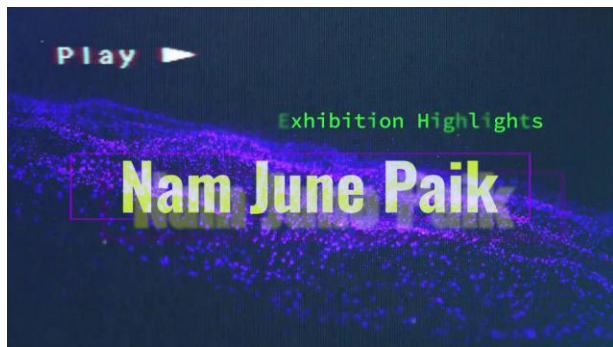
▶ YouTube : https://youtu.be/Mk_O8rYvtPM

▶ 온라인 사이트 :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계정 등

▶ 주최(참여미술관) : LA한국문화원 (SFMOMA)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or tammy@kccla.org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미국속 한국미술(Korean Art in America) 시리즈 그 세 번째 콘텐츠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SFMOMA)**에서 5.8-10.3까지 전시중인 **백남준 회고전** 작품들을 큐레이터 라이브 전시투어로 소개한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문화체험 플랫폼을 오프라인에서 YouTube 채널, 웹사이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현지인들에게 집에서 직접 미국의 주요 미술관내 한국전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번에 소개될 큐레이터 라이브 전시투어 영상은 미 서부 최초로 SFMOMA에서 성황리에 전시중인 200여점의 백남준 대표 작품들을 중심으로 버추얼 전시투어, 작품설명과 작품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시를 직접 공동 기획한 SFMOMA 루돌프 프리링(Rudolf Frieling) 미디어아트 큐레이터와 안드레아 니체-크롭(Andrea Nitsche-Krupp) 미디어아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의 영상인터뷰와 투어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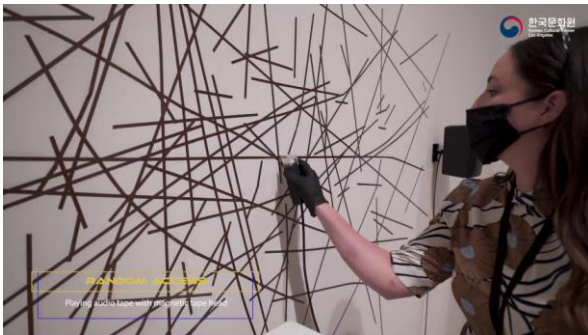
미국속 한국미술(Korean Art in America) 영상 시리즈는 미국내 주요 미술관의 한국실, 한국유물과 한국전시 등을 문화원 홈페이지 및 YouTube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 끝 /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은 미국에서 가장 큰 현대 미술관중 하나이다. 그림, 조각, 사진, 건축, 디자인 및 미디어아트 등의 콜렉션과 건축가 Snohetta and Mario Botta가 설계한 LEED Gold 인증 7층 건물에 전시되어 있다. 45,000 평방 피트에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매년 12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백남준 회고전 (Nam June Paik Exhibition)

한국이 낳은 천재 아티스트이자 '미디어 아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백남준 회고전은 그의 대표 작품 200여 점을 집대성한 것으로 SFMOMA가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갤러리와 공동 기획했다.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백남준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대거 전시되었다.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시스티네 성당(Sistine Chapel)', TV 부처(TV Buddha, 1974), TV가든(TV Garden, 1974~1977/2002)을 비롯해 존 케이지 로봇 2(John Cage Robot II, 1995), TV첼로(TV Cello, 1971) 등이 전시되었다.



*백남준(Nam June Paik)

생전에 뉴욕, 쾰른, 도쿄, 마이애미와 서울에 주로 거주한 그는 여러 매체로 예술 활동을 하였다. 현대미술의 작가, 관객, 비평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뛰어넘은 예술가로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하였다.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통해 전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다.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인 새로운 예술가 종족의 선구자", "아주 특별한 진정한 천재이자 선견지명 있는 미래학자"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 로 평가받고 있다.